

#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국가전략연구 2021-7

##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들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김기정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일** 2021년 10월 25일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편집**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ISBN** ISBN: 979-11-89781-51-4 (93340)  
**가격** 비매품

※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 |    |                         |
|----|-------------------------|
| 05 | 어느덧 길어져 버린 전쟁           |
| 09 | 역사 전환점으로서의 종전선언         |
| 13 | 종전선언 입구론에서 기획할 수 있는 전략들 |
| 17 | 종전의 시대요청과 논리            |

“종전선언 네 글자가 다시 한반도 국제무대에 등장하자,  
감성은 상상의 날개를 타고 훌쩍 미래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치과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다’ (War is Over in Europe)

‘드디어 평화! 이제 끝났다’ (Peace! It’s Over)

‘이겼다! 일본 항복’ (Victory! Japan Quits)

2차대전 종전을 알리는 당시 신문의 헤드라인 제목들이다. 큼지막하게 쓰인 짧은 단어들에 환희가 묻어 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이름 모르는 누군가를 서로 부둥켜안았다. 해군 수병과 금발 여인이 대로(大路)에서 입맞춤하는 유명한 사진은 그런 감격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서울의 강남 거리에서, 평양의 려명거리에서, 그리고 DMZ 오솔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날이 언제일까? 종전선언 네 글자가 다시 한반도 국제무대에 등장하자, 감성은 상상의 날개를 타고 훌쩍 미래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치과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1953년 7월 27일 해리슨 유엔 대표와 남일 북한 대표의 휴전협정 조인 모습(좌)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우)/사진출처=국가기록원 제공

## 어느덧 길어져 버린 전쟁

“정전협정이 서명되고 9개월 뒤 제네바에서 평화협상이 열렸다.  
1954년 4월이었다. … 그러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끝내 실패했고 그로부터 67년이 흘렀다.  
한반도에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서 있는 것이다.  
한반도가 71년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한국전쟁은 몇몇 내전과 인도-파키스탄 전쟁 등을 제외하면 근대 국제 정치 역사에서 가장 길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다. 건물과 공장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마무리를 위한 정치적 합의는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전쟁이다. 정전협정이 서명되고 9개월 뒤 제네바에서 평화협상이 열렸다. 1954년 4월이었다. 정전협정 당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쌍방이 약속했던 터였다. 평화협정 체결이 의미한 것은 명백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절차였고, 정전상태로는 안정된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끝내 실패했고 그로부터 67년이 흘렀다. 한반도에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서 있는 것이다. 한반도가 71년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전쟁 중에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 궤적이 오히려 기이한 것인지 모른다.

“선언은 선언 자체로 충분한 정치적 힘을 가진다.  
역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이 특정 국가를 위한 시혜(施惠)일 수 없다. …  
전쟁과 대립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간주할 일이 아니라 전환점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로  
봐야 한다. … 정상회담은 종전을 선언하는 과정에 등장하게 될  
하나의 절차적 옵션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2021년 9월 21일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기초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출처=청와대 제공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길어도 너무 길어진 전쟁을 이제 함께 끝내자는 ‘선언’의 제안이었다. 선언은 선언 자체로 충분한 정치적 힘을 가진다. 역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이 특정 국가를 위한 시혜(施惠)일 수 없다. 전쟁 상황을 특별히 선호하는 국가가 아니고서야 전쟁을 끝내는 결정을 타국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조건’을 운운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전쟁과 대립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간주할 일이 아니라 전환점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로 봐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기획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측도 있다. 그 역시 곡해(曲解)로부터 나온 진단이다. 정상회담은 종전을 선언하는 과정에 등장하게 될 하나의 절차적 옵션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역사 전환점으로서의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2006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바 있었고,  
2018년 ‘한반도의 봄’ 기운이 만연했을 때도 등장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평화에 대한 열망이 전쟁 지속의 습관에  
의해 압도당해온 유별난 공간이 한반도임을 다시 깨닫게 했다.”

종전선언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2006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바 있었고, 2018년 ‘한반도의 봄’ 기운이 만연했을 때도 등장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평화에 대한 열망이 전쟁 지속의 습관에 의해 압도당해온 유별난 공간이 한반도임을 다시 깨닫게 했다. 전환의 동력이 생기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늘 그렇듯, 변화의 동력은 지속성의 동력과 맹렬히 부딪히며 경합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기억의 관성, 두려움, 이익계산 방식 때문이다. 반면, 나아가려는 힘은 상상과 열망, 그리고 새로운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다. 2018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경합했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황당한 의심부터 제기되었다. 해묵은 두려움을 다시 자극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했다. 평화보다는 전쟁과 대립을 선호하는 세력은 이런 조건 속에서 은근히 정체를 드러내곤 한다.

“지금 좋은 타이밍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합의와 실천 동력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서 좋은 타이밍이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 첫 조우/사진출처=청와대 제공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인다. 난관들을 이미 목격했으니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주문이 관찰자들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북측도 호응하며 나섰다. 언술의 습관상 조건들을 달긴 했지만 말이다. 미국도 ‘열려 있다’고 화답했다. 재미 한국인 시민운동가들이 제안하여 미국 연방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도 좋은 신호다. 속내야 어떻게 중국이 마다할 리가 없다. 3~4개국의 관련국들 입장은 수렴하고 있다. 우리의 제안이 모처럼 힘을 받게 되었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합의와 실천 동력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서 좋은 타이밍이다.

## 종전선언 입구론에서 기획할 수 있는 전략들

“합의 실천의 단계별로 상호교환되는 이익들을 서로 확인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신뢰감도 쌓이게 될 것이다.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 힘든 지점들은 그 길 위에 하나둘씩 생겨날 것이다.”

평화를 향한 전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이 갖게 될 전략적 의미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한반도 이슈는 늘 복합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 체제 안보, 대북 제재의 부분해제와 경제 협력, 인도주의 지원,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 불신감 해소 등의 난제들이 얽혀 있다. 모든 사안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꺼번에 해결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른바 원샷 딜 혹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고 부르는 방안이다. 정치지도자들의 담대한 정치적 판단은 그런 대목에서 필요하다. 급물살을 타기도 하겠지만 때론 급정지의 위험도 있다. 위로부터의 접근법은 아래로부터의 협의과정과 치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합의 실천의 단계별로 상호교환되는 이익들을 서로 확인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신뢰감도 쌓이게 될 것이다.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 힘든 지점들은 그 길 위에 하나둘씩 생겨날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확인하게 된 교훈의 하나다.

단계적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면 종전선언을 모든 과정의 입구에 위치시

“(북한) 체제안보와 경제안보 담보로 진행되어야 할 일련의 과정에  
종전선언을 입구에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 긍정적 부수효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북미는 어떤 형태로든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대화 부재의 상황에서 증폭되어 온 북미 간 불신구조의 메커니즘,  
그 심리적 장애 요인들을 풀어나 갈 수 있는 계기도  
종전선언 실천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키는 일이 새삼 중요하다. 다양한 후속 절차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통상, 전략  
구상이란 제안하는 측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와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들을 통해 비로소 실천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현시점  
북한의 우려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체제안보와 경제안보다. 전자는 적대시 정책  
해소로 집약되고, 후자는 발전권 혹은 생존권 담보를 위한 제재 해제가 해법  
일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비핵화 과정과 연계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궁극적  
으로 체제안보와 경제안보 담보로 진행되어야 할 일련의 과정에 종전선언을  
입구에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 긍정적 부수효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우선,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북미는  
어떤 형태로든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적대시 정책 해  
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거론할 기회다. 사실, 종전선언 그 자체가 적대  
시 정책 해소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그 뒤를 이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  
치,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이 차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제재  
부분 해제는 그런 체제안보 해소의 실천과 맞물리게 해야 한다. 이 모든 사  
안들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 약속과 연계되어 있음도 명백하다. ‘보상과 배  
신, 먹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 과정을 거치며 신뢰구조  
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행동 변화 없이 ‘보상’하는 일을 우려  
하는 것도 현실이다. 북한이 세팅한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라는 일각의 우  
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화 부재의 상황에서 증폭되어 온  
북미 간 불신구조의 메커니즘, 그 심리적 장애 요인들을 풀어나 갈 수 있는  
계기도 종전선언 실천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 종전의 시대요청과 논리

“한반도에서 평화를 향한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평화 공존의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한반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 종전을 선언한다고 안보를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 종전 이후에도, 심지어 평화공존 속에서도 안보 추구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마땅하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사실, 종전선언에 관계하려는 행위자가 너무 많아지면 진행 속도가 늦춰질 위험이 있다. 적으면 적을수록 실천력 갖추기가 더 용이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를 향한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평화 공존의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한반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반도 적대적 대립에 익숙해진, 전쟁을 이익으로 간주해온 몇몇 국가 전략가들의 뒤틀린 전략 선택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종전을 선언한다고 안보를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 종전 이후에도, 심지어 평화공존 속에서도 안보 추구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마땅하다. 방법에는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안보 구상을 실천에 옮길

“너무 길어져 오히려 전쟁의 비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 무디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자문해 볼 때다.  
전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기회가 될 것이다. 안보와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란 없다. 이론영역  
에서도 정치 현장에서도 그렇게 단순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전선  
언이 주권을 정지시키거나 위축시키지도 않는다. 한미동맹은 주권적 영역  
의 합이다. 종전선언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 안보협력 방안은  
광범위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끝장낼 것이다.’

미국 존 케네디(John F. Kennedy) 전(前) 대통령의 연설 중 언급된 문장  
이다. 이 같은 절박한 위기감은 후일 베트남 반전 데모 현장에서도 재연되  
었다. 인류 문명사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쟁과 폭력이다. 그러  
나 그럴수록,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한층 강렬  
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던 인간들의 굳  
은 의지 때문에 인류 문명사 전체를 전쟁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21세기 한  
반도에서 그런 희망을 이어나가야 한다. 너무 길어져 오히려 전쟁의 비극  
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 무디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자문해 볼 때  
다. 전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 What must begin with the end-of-war declaration

**Ki-jung Kim**

President,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search 2021-7

## What must begin with the end-of-war declaration

ISBN 979-11-89781-51-4 (93340); Printed on Oct 22, 2021 in Seoul, Korea

Copyright by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topia Bldg., 120, Eonju-ro, Gangnam-gu, Seoul 06295, Republic of Korea

Tel: +82-2-6191-1000 (Fax: +82-2-6191-1111)

Design: Goodplus Communications

Website: [www.inss.re.kr](http://www.inss.re.kr)

Not For Sale

---

※ The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reflect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at must begin with  
the end-of-war declaration

**Ki-jung Kim** President, INSS

- 
- 05 A war unknowingly prolonged
  - 11 The end-of-war declaration as a historic turning point
  - 17 The end-of-war declaration as an outset strategy
  - 23 The end-of-the war declaration as an imperative for the future

“When the four words of “end-of-war declaration” reemerged onto the global stage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emotions were running high, as if ready to spread wings and soar into the hopeful future.

However, the political process has only just begun.”

“War is Over in Europe.”

“Peace! It’s Over.”

“Victory! Japan Quits.”

These are the newspaper headlines that announced the end of World War II. There is great joy contained in such short but bold-font words. People ran out into the streets and embraced complete strangers. Such jubilant emotions are forever memorialized in the famous photograph of a navy sailor and a blonde woman kissing on a boulevard.

When will we see similar spectacles on the streets of Gangnam in Seoul, on Ryomyong Street in Pyongyang, or on the trails at the DMZ? When the four words of “end-of-war declaration” reemerged onto the global stage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emotions were running high, as if ready to spread wings and soar into the hopeful future. However, the political process has only just begun.



## A war unknowingly prolonged

Korean War Armistice signing at Panmunjeom 27 July 1953. (Left)  
Seoul in ruins during Korean War. (Right)/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ine month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peace negotiations were held in Geneva. The date was April 1954. ... However, these efforts in reaching a political agreement were ultimately unsuccessful, and 67 years have since pass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is not over but rather at a standstill. We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t war for 71 years.”

The Korean War is the longest-running war in the history of modern international politics, excluding a few civil wars and the Indo-Pakistani War. Buildings and factories were destroyed and innumerable people were killed, but the war failed to conclude with a faithful commitment to a political agreement on its cessation. Nine month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peace negotiations were held in Geneva. The date was April 1954. At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both sides had pledged to hold political talks “to ensure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It was clear what the peace agreement was intended for. This was part of a formal procedure to end the war, and a stable peace could not be achieved under the state of an armistice. However, these efforts in reaching a political agreement were ultimately unsuccessful, and 67 years have since

“This declaration itself has sufficient political power because it is a declaration that signifies a historical transition. Here, the end-of-war declaration cannot serve as a benediction for a particular country.”



President Moon Delivering a keynote speech at the 76th U.N. General Assembly/  
Source: Cheongwadae

pass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is not over but rather at a standstill. We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t war for 71 years. Considering thi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which in spite of an ongoing war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that captured the world’s attention, may seem even more unusual.

In September 2021, President Moon Jae-in again proposed an end-of-war declaration in his speech at the United Nations. It was a proposal to ‘declare’ putting an end together to a war that has lasted far too long. This declaration itself has sufficient political power because it is a declaration that signifies a historical transition. Here, the end-of-war declaration cannot serve as a

“The problems created by war and confront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conditions’ to declare the end of war but should instead be treated as issues that need to be ‘gradually solved’ after the transition.”

“An inter-Korean summit is one procedural option that can emerge in the process of the end-of-war declaration, thus, not the end in itself.”

benediction for a particular country. That is, it is unreasonable to regard the decision to end the war as an act of benevolence to other countries, unless the country somehow has a particular preference for the circumstances of war. Likewise, it is also not reasonable to talk about the ‘conditions’ for an end-of-war declaration. The problems created by war and confront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conditions’ to declare the end of war but should instead be treated as issues that need to be ‘gradually solved’ after the transition. Some may suspect that the call is simply a ploy for an inter-Korean summit. But this too is a misunderstanding from distorted views. An inter-Korean summit is one procedural option that can emerge in the process of the end-of-war declaration, thus, not the end in itself.

## The end-of-war declaration as a historic turning point

“The end-of-war declaration is not a new issue. It was proposed at the 2006 Roh- Bush summit, and it also emerged in 2018 amid the heightening feelings of a ‘spring tim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at is all it amounted to. It was a reminder of how the Korean Peninsula is an unusual place where the desire for peace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habits of a continuous war.”

The end-of-war declaration is not a new issue. It was proposed at the 2006 Roh- Bush summit, and it also emerged in 2018 amid the heightening feelings of a ‘spring tim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at is all it amounted to. It was a reminder of how the Korean Peninsula is an unusual place where the desire for peace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habits of a continuous war. There may be a number of reasons why there is no real push for a transition. As always, the force of change is fiercely competing with the force of continuity. The factors behind immobility are memory-induced inertia, fear, and profit calculation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behind the push forward are imagination, aspiration, and anticipation of new gains. The competition between these factors was observed in 2018 as well. An absurd suspicion arose that the end-of-war declaration was a

“Something seems different this time.  
Having witnessed the difficulties of the past,  
this time, the demand that ‘something must be different’ is  
more sincerely felt among observers.”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meet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Panmunjeom/Source: Cheongwadae

preliminary measure for the eventual withdrawal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Korea. It rekindled an age-old fear. And it further sparked a political and ideological debate. Forces that would rather prefer war and confrontation than peace often come to reveal their identities under these conditions.

But something seems different this time. Having witnessed the difficulties of the past, this time, the demand that ‘something must be different’ is more sincerely felt among observers. North Korea has also responded by stepping forward but with conditions, in line with its habits in discourse. The United States also responded by stating it is ‘open’ to the possibility. Another positive indication is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which is

“It does not matter much whether now is a good time or not to pursue change. The moment in which consensus and incentive for change are formed is a good timing in itself.”

being pursued by Korean-American activists and has been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China, whatever its true sentiment may be, it will be difficult to be averse to the possibility of change. The positions are converging between the three or four countries involved in this issue; our proposal has been gaining much-awaited momentum. It does not matter much whether now is a good time or not to pursue change. The moment in which consensus and incentive for change are formed is a good timing in itself.

## The end-of-war declaration as an outset strategy

“It is also important that at each stage of implementing agreements, each side confirms with the other on the mutually exchanged gains involved. This will simultaneously build trust, and thus checkpoints along the path towards progress that will make it difficult for one side to suddenly backtrack to previous means of conduct.”

We should also consider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end-of-war declaration as a symbolic declaration toward peace. Issue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always complex. Various challenges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such 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regime security,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easing military tensions, arms control, and alleviating distrust. We may choose to put all these issues on the table and discuss their solutions all at once. This is a so-called 'one-shot deal' or 'grand bargain.' In this context, the bold political judgment of political leaders becomes necessary. While this approach may provide a sudden surge of progress, there is equally the risk of progress coming to a sudden stop. A top-down approach should be tightly linked by a bottom-up

“Ultimately, in the series of processes on regime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guarantees, putting the end-of-war declaration at the forefront of negotiations will certainly bring a number of positive side effects.”

“The end-of-war declaration will provide momentum for the resumption of dialogue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engage in dialogues in some form or another.”

consultation process. It is also important that at each stage of implementing agreements, each side confirms with the other on the mutually exchanged gains involved. This will simultaneously build trust, and thus checkpoints along the path towards progress that will make it difficult for one side to suddenly backtrack to previous means of conduct. This was a crucial lesson learned after the Hanoi’s No Deal.

If we consider a step-by-step approach, it is important to place the end-of-war declaration at the starting point of each step of the procedure. Then various subsequent procedures will be made available. Usually, strategy planning starts largely based on the planners’ aspirations, but later becomes practical only through efforts to understand the interests of relevant parties and resolve any rising concern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North Korea’s current concerns through a strategic viewpoint. While various issues lie intricately intertwined, there are two main concerns: regime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In terms of their solutions, the former will revolve around resolving hostile policies, and the latter will be on the lifting of sanctions to secure the rights to live and develop. Both solutions are self-evident in their ties to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Ultimately, in the series of processes on regime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guarantees, putting the end-of-war declaration at the forefront of negotiations will certainly bring a number of positive side effects.

“The pursuit of the end-of-war declaration will also provide an impetus to unravel the psychological barriers and mechanisms of dis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at have grown in the absence of dialogues.”

Most of all, the end-of-war declaration will provide momentum for the resumption of dialogue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engage in dialogues in some form or another. For North Korea,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discuss various demands for resolving current hostile policies against the country. In fact, the end-of-war declaration itself serves as a signal for the resolution of hostile policies. Following the declaration, further measures can be sequentially discuss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liaison offi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Partial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should be aligned with this implementation of resolving regime security. It also becomes clear that all these issues are linked to North Korea'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go through this process and establish a structure of trust in order to minimize North Korea's controversial image of 'being compensated, then betraying and fleeing.' Potentially 'compensating' North Korea without the country having changed its behavior is a major concern. Realistically, we cannot ignore the voices of those that worry for the possibility of being set up and deceived by North Korea. Lastly, the pursuit of the end-of-war declaration will also provide an impetus to unravel the psychological barriers and mechanisms of dis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at have grown in the absence of dialogues.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ecessary when considering that transition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universal demand of the tim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be reminded that a Korean Peninsula of peaceful coexistence can provide more benefits than a Korean Peninsula of war and confrontation.”

## The end-of-the war declaration as an imperative for the future

The end-of-war declaration must also secure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ruth, there is the risk of slowing progress if too many actors are involved in the end-of-war declaration. The smaller the number, the easier it is to execute demands. However,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ecessary when considering that transition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universal demand of the tim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be reminded that a Korean Peninsula of peaceful coexistence can provide more benefits than a Korean Peninsula of war and confrontation. In doing so,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wisted strategy calculations of some national strategists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hostile confront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reat war as a source of gains.

No country gives up its security by declaring the end of war. Even after

“No country gives up its security by declaring the end of war. Even after the official end of war, especially in the midst of peaceful coexistence, proper efforts to pursue security should continue.”

“It is time to ask ourselves again whether our perception of the tragedy and horrors of war has dulled over time from the prolonging of war. Hence, the war must end now.”

the official end of war, especially in the midst of peaceful coexistence, proper efforts to pursue security should continue. There may be some changes to how South Korea pursues this. But this will rather be an opportunity to put various security initiatives into practice. There is no ‘single road’ to achieving security and peace. Likewise, there is no one simple answer offered in the realm of political theory or the political field. The end-of-war declaration also does not suspend or diminish sovereignty.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is an agreement under the premise of state sovereignty. Even after the end-of-war declaration, measures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role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should continue to be extensively explored and sought after.

“Mankind must put an end to war, or war will put an end to mankind.”

This is a quote from former United States President John F. Kennedy, made during his speech in 1963. The phrase, highlighting a desperate sense of danger, later re-appeared during the anti-Vietnam War demonstrations. War and violence have occupied a large part of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is constant waging of war has only greatly intensified the human aspiration for peace.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is not called the history of war because of this strong will of humanity to find light even in the depths of darkness. Such hopes must continue 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It is time to ask ourselves again whether our perception of the tragedy and horrors of war has dulled over time from the prolonging of war. Hence, the war must end now.